

18일간 106명 확진... ‘긴급 멈춤’에 사활건 여수시

오는 23일까지 여수시민 ‘긴급 멈춤 주간’ 시민동참 촉구
버스승강장·시장 등 다중집합장소 700여 곳에 집중방역

“우리가 먼저 멈춰야 합니다.”

전남 여수에서 최근 18일간 10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무서운 기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전 시민 긴급 멈춤’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일 여수시는 ‘코로나19’확산이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23일까지 ‘긴급 멈춤 주간’을 정하고 전 시민 동참을 촉구했다.

시는 비대면 시민홍보를 위해 사적모임·행사 및 외부활동 자제를 호소하는 ‘긴급 멈춤’ 주간 전 시민 참여 홍보 현수막을 시내 200여 곳에 게시하고, 사회단체 자생단체 등과 함께 대대적인 캠페인과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7개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본부 중심을 23일까지 소규모 홍보 캠페인에 나서고, 버스승강장, 시장, 동네체육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 다중집합장소 700여 곳을 찾아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여수시민 긴급 멈춤 주간’으로 삼고, 민·관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서 “전 시민과 각급 기관·단체·기업은 사적모임 및 행사를 중지하고, 긴급 멈춤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수시에서는 지난 2일 유흥업소발 감염을 시작으로 요양병원 보호사와 환자, 마사지숍



여수시 청사 정면에 걸린 여수시민 ‘긴급 멈춤 주간’ 알림 현수막. (사진=여수시청 제공)

근무 외국 여성, 국동임시별관청사 공무원 등 생활 속 감염, 가족 간 감염이 지속됐다. 18일간 10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산발적 감염

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여수시 누적 확진자는 20일 15시 기준 185명이다.

여수=오상호기자

‘5·18 악명’ 옛 505보안부대 41년 만에 역사공원 재탄생

1980년 5월 민주시민 투옥·고문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투옥되고 혹독한 고문을 받았던 옛 505보안부대(옛 기무부대)가 광주의 아픔과 역사를 배우는 5·18 역사공원으로 재탄생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광주시는 20일 서구 쌍촌동 5·18역사공원에 이용섭 시장, 김용집 시의회 의장, 서대석 서구청장, 옥현진 천주교광주대교구 주교, 5월 단체, 일반 시민 등과 개방행사를 가졌다.

5·18 역사공원은 3만6000㎡ 규모에 역사배움터, 야외무대, 상징문주, 상징열주, 잔디마당, 산책로, 주차장 등으로 꾸며졌다.

역사배움터에는 시간대별로 10일 간의 5·18 민주화운동을 볼 수 있는 ‘참여의 벽’, 태일 벽화를 이용한 ‘역사의 벽’ 등을 마련해 시민들이 5·18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18역사공원 안에 기존 아름답리 상수리나무와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단풍나무 등은 원형 보존했고, 이팝나무와 팽나무, 소나무 등을 식재하고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위로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쉼터로 조성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옛 505보안부대 본관을 비롯해 식당·이발소, 면회실, 위병소, 정문 등 원형복원된 5·18사적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했고, 내부반 별관을 리모델링을 통해 5·18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옛 505보안부대는 1980년 당시 지역 인사와 학생운동 지도부, 시민 등을 체포해 지하 감옥에 가두고 혹독한 고문수사를 했던 곳으로 악명이 높다. 이후 2005년 11월 오치동 31사단으로 이전된 후 방치되다가 5·18의 아픈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2007년 5·18사적지 제26호로 지정하고 2008년에는 5·18역사공원으로 지정했다.

시는 2015년부터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과 5·18 역사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지난 2019년 ‘미래세대 꿈의 공원’이라는 주제로 역사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 후 사업비 38억 원을 확보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실시 계획인가를 완료했다.

이용섭 시장은 “5·18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 시민, 관광객 등 누구나 이곳에서 오월의 진실과 마주하고 광주정신을 가슴에 새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전남 60~74세 AZ 접종 사전예약률 전국보다 높다

61.5% 기록...전국 평균 50.7%

전남지역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60~74세 예방접종 사전예약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61.5%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시작한 60~74세, 만성중증호흡기 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접수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률이 이날 현재 61.5%를 기록해 전국 평균 50.7%보다 높았다.

전남지역 전체 접종 대상자는 38만3095명이며 이 중 23만5603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신청했다.

연령대별로 60~64세가 48.4%로 가장 낮았고, 이어 65~69세가 66.8%, 70~74세가 73.4%로 연령이 높을수록 예약률이 높았다.

만성중증호흡기 질환자는 59.0%,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교사는 72.2%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백신 예방접종이 코로나19 감염 차단과 가장 뛰어난 방법인 만큼 접종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6월3일까지 가능하며,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

김정환기자

광주 우치동물원 5년 간 180마리 폐사

52마리는 투쟁·사고사, 질병 폐사도 81마리 “시설 노후화, TF팀서 활성화 방안 마련 중”



광주 우치동물원 사육 동물 중 번식설 싸움이나 불의의 사고로 죽은 동물이 최근 5년새 200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우치공원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 간 우치동물원에 갇혀 살다 죽은 동물의 수는 180마리에 이른다. 이 중 투쟁사 또는

사고사로 죽은 동물이 52마리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 전체 폐사 40마리 중 8마리, 2017년 27마리 중 6마리, 2018년 39마리 중 11마리, 2019년 44마리 중 14마리, 지난해 30마리 중 13마리 등이다.

질병으로 폐사한 동물은 2016년 14마리, 2017년 24마리, 2018년 19마리, 2019년 15

마리, 지난해 9마리 등 모두 81마리다.

10마리 중 8마리가 질병과 투쟁·사고로 죽은 셈이다. 노령 등으로 인한 자연사는 47마리(26.1%)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말레이가이알 악어, 엘리게이터 악어, 사바나 왕도마뱀 등 파충류 4마리가 폐사했고, 2019년에는 붉은이마앵무 8마리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다. 2019년과 지난해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반달가슴곰 등 2마리가 죽었다. 이로 인해 전체 사육두수도 줄어 2016년 780마리이던 것이 2017년 775마리, 2018년 756마리, 2019년 690마리, 지난해 642마리로 매년 감소했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동물원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시설 노후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 공원녹지와 등과 함께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동물원 활성화는 물론 동물 복지, 관람 환경 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치동물원은 12만1300여㎡ 규모로, 국제멸종위기종만 44종 112마리, 천연기념물도 4종 22마리에 이른다.

기동취재본부

토요일은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오늘의 한걸음, 미래의 행복백신

ㅎㅎㅎ 내삶이 행복한 광산

행복으로 路 걷기 광산 시민 & 동아리 모집

개인 (주민)



- 1 워크온 앱 설치 및 실행
- 2 광산구 커뮤니티 그룹 행복으로 가입

동아리 (5인 이상 단체)



- 1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2 동아리 가입 신청서류 제출

이렇게 신청하세요



문의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